

지스트 지구·환경공학부 장인섭 교수, 한국공학한림원 신입 회원 선출

- 2022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차세대회원에 선출



▲ 지구·환경공학부 장인섭 교수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지구·환경공학부 장인섭 교수가 한국공학한림원 2022년 신입 일반회원으로 선출됐다.

장인섭 교수는 바이오연료전지 원천기술과 효소-전극 전자전달 메커니즘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을 인정받아 한국공학한림원 화학생명공학 분야 일반회원으로 선정되었다.

장인섭 교수는 웨일즈 스완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환경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을 거쳐 2005년 지스트 환경공학과(현, 지구·환경공학부)에 부임하였다.

장 교수는 연구 분야의 선도적 논문 발표 및 연구역량 지표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International Society for Microbial Electrochemistry and Technology'의 Board Member, 'Bioresource Technology'의 Editorial Board로 활동하며, 활발한 연구 활동과 함께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은 연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장인섭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은 '(에너지환경융합/산업기술융합) 도시형생활폐기물 가스화물질 혁신적 전환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2021년 선도연구센터에 선정되어 현재 지스트 에코시스캠 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본 연구센터는 도시형 생활폐기물(MSW)의 친환경 처리 및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원천 기술 확보를 목표로, 도시형 생활폐기물(MSW) 유래 합성가스형 전가스 전환용 생물기술 연구, 합성가스 반응 후 잔여 이산화탄소 전환용 촉매, 반응기술 개발, 합성가스 유래 유·무기 부산물 회수, 안정화, 고부가화 기술 개발을 연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공학한림원(The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of Korea)은 공학산업 기술 및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나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고 전문가들을 매년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의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심사 후 연임이 가능하다.